

치열한 한국대학, 세계 속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명문대학, 좋은 학벌’을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들어가기 위한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가 세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으로 지역을 한정해 평가에서조차 상위 10개 대학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하고 있다.

한국, 높은 교육열에 비해 가성비 최악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높은 교육열이 과거의 한국을 현재 위치까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은 미래의 경쟁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교육에의 비용효과(가성비)가 지극히 낮은 것으로 세계적이다. 우선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식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2021년 사교육비가 23조 4,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나 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이 1만3819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1990달러보다 15%나 많으며 GDP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율도 5.3%로 OECD 평균 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지극히 낮은 점에서 막대한 낭비를 염려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6.5배로 가장 낮았다고 전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 생산성은 떨어진다. 국가별로는 아일랜드가 22.8배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프랑스·미국 등은 각각 10배를 웃돌았다. 호주(9.7배), 캐나다(8.8배), 독일(8.5배), 일본(7.8배) 등도 한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40% 많은 교육비(10대 기준)를 지출하지만, 근로자들의 1인당 GDP는 아일랜드보다 60% 적었다. 교육열과 비교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가성비 꼴찌 국가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적 능력이 감퇴하는 국가라는 분석도 더했다. 각국의 16~24세와 55~65세의 문해력·수리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그 격차가 가장 컸다. 한국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지속성과 자율성이 부족해 졸업 후 근로자가 되면 이들의 능력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 이유에는 명문대 진학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황금티켓 증후군’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대학 졸업생 중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 등 노동시장 수요와 근로자 능력 불일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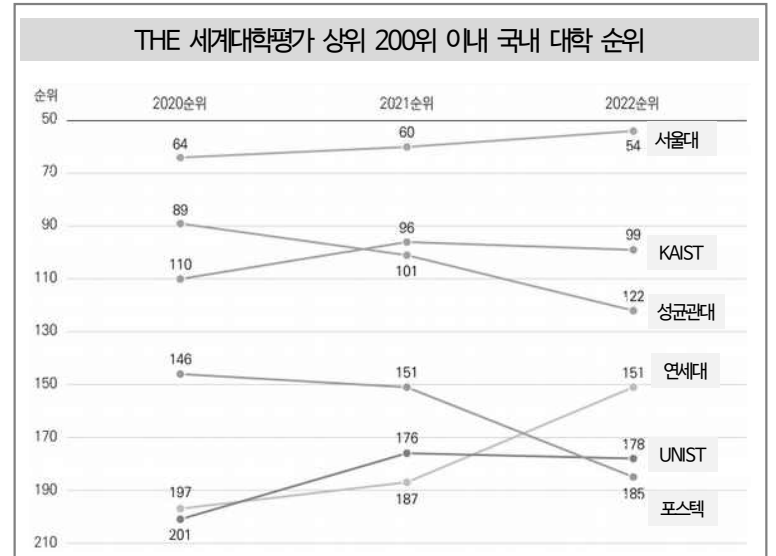
선진국 중 가장 큰 국가로 분석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4년제 대졸자의 비율로 볼 때 2010~2020년 사이에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비율이 29.7%→33.7%로 증가했다. 이는 2021년 OECD 청년(25~34세) 고용 현황에서도 전공·직업 간의 미스매치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50%로 단연코 22개 국가 중에 1위였다.

이른바 대학 공부와 직업이 절반(1/2)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아서 다시 재훈련을 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낭비가 심각하다. 한국의 교육열은 1950년대 전쟁 폐허에서 경제적 성과를 낸 핵심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노동시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젊은층의 정신건강까지 해친다는 전문가 견해도 인용됐다.

경제력 10위, 대학 경쟁력은 47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위상보다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대학 경쟁력은 세계 4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IMD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참가국 64개국 중 23위다. 반면 대학 교육 경쟁력은 47위로 하위권이다. 국내 대학 경쟁력 하락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9%보다 낮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그친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99개국 1,662개 대학에 대해 평가하고 ‘THE 세계 대학 순위 2022’를 발표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가 공동 2위를, 스탠퍼드대학교가 4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이 선두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가 공동 16위, 싱가포르의 국립싱가포르대학교가 21위, 홍콩의 홍콩대학교가 30위, 일본의 도쿄대학교가 35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가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권에서도 중국·싱가포르·홍콩·일본 등의 대학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우리나라 1위 대학인 서울대학교는 최근 3년 사이에 64위→60위→54위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우수한데, 어째서 대학은 그렇지 못한가? 2019년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 수가 131,518명으로 나타난 것은 국내에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대학이 부재하다는 것이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는 2019년 현재 1,164명으로 중국(6,305명)·인도(2,05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 역시 국내 대학원의 수준이 열악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4년제 대학에서는 대학원을 반드시 두고 있을 정도로 대학원이 지천이다. 맘만 먹으면 국내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만큼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했다.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는 해외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에 비해 그 가치가 낮다. 국내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높게 평가하는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사학위는 국내에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석·박사, 특히 박사학위는 해외에서 취득해야 ‘행세’할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유학 가고 싶은 나라는?

유학전문기관 에듀케이션닷컴이 세계 182개국 10,000명 이상의 외국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나라는 호주(83.31점)가 2021년 1위였던 캐나다를 제치고 유학 선호국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캐나다(81.52점), 독일(79.94점), 미국(79.08점), 스위스(76.3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평가 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교육 품질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나라는 영국(25.94점), 미국(25.93점), 호주(25.20점) 순으로 우위를 보였다. 한국(57.25점)은 22위로 2021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다.

출산율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나라가 산다

아기를 낳지 않고 있다. 아니 낳은 아기를 죽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하는 소리는 공허한 공명이 아니다. 소리 없는 비명에 가는 생명 앞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쏟으며 희망을 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2075년 후엔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뒤쳐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홍콩문화보는 최근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펴낸 최신 전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현 GDP는 8천14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지만 2025년이면 세계 9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50년엔 1인당 GDP는 8만1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엔 1인당 국내총생산, GDP가 8만1천 달러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다.

그런 골드만삭스가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인구 증가율이 2075년엔 0%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며, 그 영향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미칠 것이라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된다. 2075년에는 인도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고 나이지리아는 새롭게 5위권에 진입한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파키스탄과 필리핀도 각각 6위, 14위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반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점점 뒷걸음질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 0.8%로 하락하고,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올해 경제 규모 12위(예측)인 한국이 2050년에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도 스스로 분석을 뒤집을 정도로 한국의

인구 현실은 심각한 것이다. 그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34개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는 후자의 경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에 골드만삭스는 섬찔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우리는 2016년부터 1.17%의 출산율을 보이더니 급기야 2018년부터 0.98%로 계속 하락, 2022년 작년엔 0.77%로 줄었다. 사망자와 출산자들과 비교, 순수 인구가 5만 7천이 줄게 되었다. 1970년에 100만 출산이 2000년에 64만89명, 2017년에 35만7771명으로 급감, 기어코 작년에 0.76%로 이대로 가면 2025년엔 0.61%의 출산율로 국가의 존립 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적 제조업 강국이다. 조선, 반도체, 전기자동차, 가전을 비롯 전방위적으로 선도적 제조능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많지 않다. 심지어 항공전투기를 포함한 군사무기 등 서방의 거의 유일한 무기공급국으로 급부상, 글로벌 리더십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현장에 가장 핵심인력인 용접공이 60대가 많다는 얘기는 5년 후의 암담한 미래를 보게 한다. 외국인 노동자 200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수많은 서비스업, 제조업, 공사 등 심각한 인력난으로 현재의 일본처럼 공사불능상태에 빠질 것도 불문가지다.

늘어가는 대한민국에 40년이 지나면 인구 3명당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가 된다.

한 목사의 낮두리처럼 여기지 말라. 암환자에게 아무리 진통제를 먹여도 치료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종합적인 치유책을 내어놓고 실행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하루 3000명의 낙태추진(대한산부인과협회)을 심각히 정부와 교계, 교육계가 인식해야 한다. 1년이면 100만이 넘는다. 믿을 수 있는가? 이 영아 낙태사망을 80%까지 살리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 결혼기피풍조, 동거문화의 확산, 결혼 후 아이 없이 엔조형의 부모모텔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불가능해 보여도 세계모범국으로 해내고 있지 않나.

이 민족은 위기에 강하다.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나서야 한다. 교회마다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생명살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

둘째, 출산율 저감으로 비어가는 초등학교, 대학교 캠퍼스가 있다. 지방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비어가는 공간을 정부는 적극 수용, 보육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재개소해야 한다. 교회와 각 사회단체가 수거한 아이를 여기에 맡겨 보육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에 어린이 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년 수만에 이르는 유아교육과 출신들을 보육사로 키워내고, 이 캠퍼스를 영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투입하라. 무너지는 지방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노령연금에는 미래가 없다. 이 세대를 붙잡아야 한다. 심지어 이걸 위해 교육세를 다시 낼 각오도 해야 한다.

셋째, 이 아이들을 연대해서 교계가 아이들 입양 운동을 전개, 아이들의 이름을 양육부모로 올리는 운동도 해볼 필요가 있다. 직접입양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육부모제도를 세워 후원하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워 주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 교회는 바른 성정체성교육, 커리의 재조정, 무책임한 동거문화를 성경적 원리로 시정토록 해야 한다. 바른 가정을 세우도록 교계, 교육계가 각성해야 한다.

이 엄청난 신인본주의의 물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잣대를 설파해야 한다. 길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고, 기독교학교들은 정체성 회복에 적극 투쟁해서 본령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의 성공지키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신 학교괴담, 학교가 사라진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국내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자연 감소하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빠른 속도다. 2030년에는 '인구지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지진이 도래하면 노인 부양비가 급증하고 일부 지방 도시들은 소멸되는 등 한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국, 출생률 세계 꼴찌

한국이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지속적인 경제난과 고용불안으로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데다 일과 노동의 균형 및 육아부담 등으로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가 출산을 기피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단연 꼴찌 수준이다. 2022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의 부작용

① 학령인구의 감소

초1부터 고3까지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20여년 전 예고됐던 저출산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지점은 대학입시다. 최근 치러진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 '제로(0)' 사태가 벌어지는 등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게 입시업체의 진단이다. 올해 수험생 수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일부 대학에선 24학번 새내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선발인원은 51만 884명이다. 수능 예상 응시생보다 10만 명이 많은 셈이다. 수시모집 등을 다 합쳐도 4만 명가량의 대입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사립대 비율이 85%에 달하고,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힘들어진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밑으로 떨어진 201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9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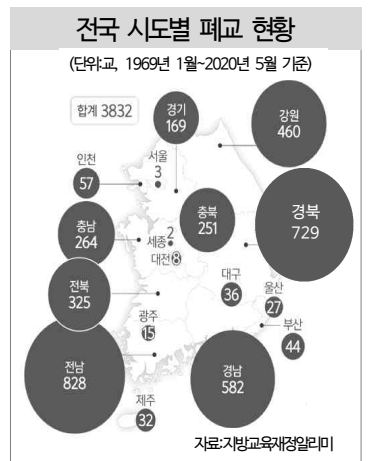
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수는 37만9373명으로 40만 명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이 6만6324명으로 사상 첫 6만 명대로 내려앉은 등 신입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는 28만5563명으로 3년 만에 30만 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2018년 다음해인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는 해다. 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는 2029년이 되면 전국 초등학생 수는 170만 명으로 올해보다 34%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위기도 커지고 있다. 농촌에서만 보였던 폐교가 도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은 서울 광진구 화양초는 지난 12일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인근 초교와 통합된다.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폐교되는 서울 도봉고도 더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② 지방의 인구감소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하며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국가의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처럼 수도권 인구집중까지 심화하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2017년 85곳에서 2021년에는 108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기초단체의 47.4%에 해당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

특히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7곳에서 2019년 16곳, 2021년에는 39곳으로 급증 추세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지역소멸은 일자리와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맞물려 있다. 지역소멸 가능성은 지역 경제를 침체시켜 일자리와 소비 여력을 줄이고 이는 다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로 이어진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는 수도권 과밀화로 결혼·출산 기피를 유발해 국가 전체의 출생률 저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 수요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거점도시마저 쇠퇴하며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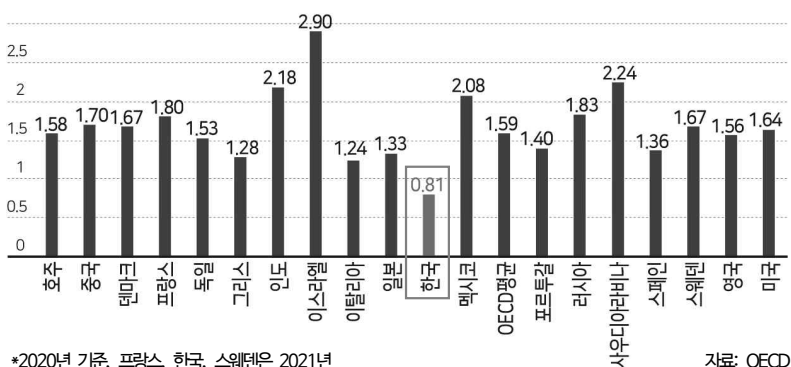
폐교의 활용법

폐교 시설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미들수련원은 강원도 정선의 남선초등학교 낙동분교장이 2010년 폐교됨에 개인이 대부분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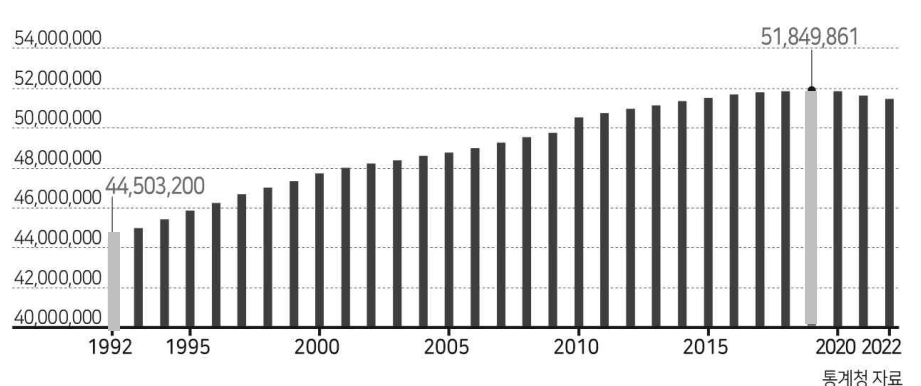
익산 교도소세트장은 성당초 남성 분교 폐교를 개조한 영화 촬영장으로 수감시설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 교도소세트장은 2005년 영화<홀리데이> 촬영을 위한 세트장으로 익산시와 영화제작사가 손을 잡고 세워졌다. 이후 <거룩한 계보>, <타짜>, <식객>, <해바라기>를 촬영했고, 드라마<아이리스>, <태양을 삼켜라>, <수상한 삼형제>와 <노란 복수초>, <더킹투하츠>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시안미술관은 1999년 폐교된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초등학교 가상분교를 3년간 임대해 사용하다가 2002년 매각되었고,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1종 미술관으로 2004년 개관했다.

OECD 국가별 출산율(단위:명)



대한민국 총인구 최근 30년 추이(단위:명)



누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하는가

동성애에 대하여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나의 논쟁은 빈번하다. 동성애에 대하여 이를 따지는 이유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동성애는 고칠 수 없는 것이고, 후천적이라면 만들어진 습관이므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의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동성애의 선천성 논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현재에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성애 선천성을 인정하면 동성애는 피부색과 같이 선택할 수 없는 내재적 요인이기에 이를 질병으로 보거나, 이성애자로의 전환치료, 나아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 것도 힘을 잃게 된다.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은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므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그들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서구의 많은 사람을 설득시켜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때문에,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동성애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러기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일반적 관점에서 많은 유전자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동성애란 행동양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계 조사를 해 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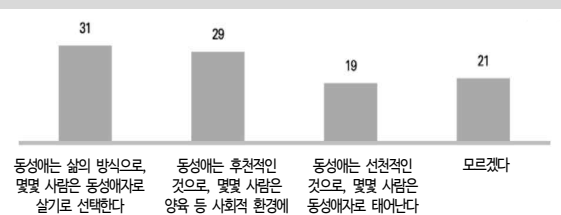
그렇다면, 동성애가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결과인가?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 수가 많다면, 많은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하기에,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핵심적인 유전자의 한 두 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동성애가 생기는 것인가? 다운증후군과 같이 한 두 개의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25% 이하의 빈도를 가지고,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친 빈도는 약 2.4%이기에, 동성애가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동성애가 유전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예로서 두뇌에 의해, 혹은 태아기에 성호르몬 이상을 겪어서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성적지향이 정신적 성향이기에 두뇌에 의해 정해지며 동성애자의 두뇌는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다른 특징을 가질 것으로 추측했다. 예전의 과학은 태아의 8주-24주에 남성호르몬 증대가 일어나기에 두뇌에 영향을 주고, 그 시기에 성호르몬 이상으로 동성애자가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추측에는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정하여져 평생 변하지 않고, 성적지향도 두뇌에 의해 정해져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최근 과학은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결정되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임신 24주 이후에도 여러 번 성호르몬 증대가 있으며, 태어났을 때 남녀 두뇌가 크게 다르지 않고, 태어난 후 환경 영향을 받아 두뇌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성인 두뇌도 경험, 습관, 훈련 등으로 변화됨이 두뇌 촬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태어날 때 특별한 두뇌를 가져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 (단위: %)



질문: 동성애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7.2~7.7

자료: 한국리서치경리조사 여론 속의 여론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동성애 성향이 유전자 또는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면, 같은 유전자를 갖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에 대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 미국 국민 1,512명을 조사한 결과, 비이성에 일치 비율은 18.8%이었다. 2000년 호주 국민을 조사한 결과 남성 11.1%, 여성 13.6%이었다. 2010년 스웨덴 국민 7,652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9.9%, 여성 12.1%이었다.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출생하기 전에 자궁 내에서 동일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고,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자라났기에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1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도 동성애자가 되는데 적은 효과를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은 유전자, 태아기의 호르몬 등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동성애가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 인간의 성에 대한 용어

용어	내용
생물학적 성 (Biological Sex)	성(性)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는 출생 시 해부학적 특징, 즉 성기의 모양과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절대적이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 즉 남성은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근육이 발달하는데, 여성은 가슴이 나오고, 골반이 커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는 특징으로도 구분한다. 이런 특징들은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다.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이다. 44개는 상염색체(보통염색체)이고, 2개는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가 XX면 여성, XY면 남성이 된다.
성적 정체성 (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을 다르게 느끼는 사람으로 분명히 여자아이인데 자기는 남성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성별을 성적 정체성이라고 한다.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는 시스젠더(cis-gender)라고 하고,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 신체구조가 바뀐 사람은 성전환자라고 한다.
성적 표현 (Gender Expression)	성적 표현이란 옷이나 장신구, 행동, 언어 등 외관상 나타나는 젠더에 관련된 특징들을 말한다.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우리 말로는 그냥 '성'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sex와 gender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보통 sex는 생물학적인 성을 가리키거나 성적 행위와 연관된 것들을 지칭할 때 쓴다. 성적 행위와 관련된 주제란 뜻이다. gender는 성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을 얘기할 때 쓴다. 성적지향을 말할 때 영어로 gender라고 하지 않고 sex란 용어를 사용한다. 성적 행위와 관련된 주제란 뜻이다. 동성애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생물학적 성이 어떻든, 성적 정체성이 어떻든 대개 사춘기가 되면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끌리게 된다. 이걸 성적지향이라고 한다. 대부분 이성을 사랑하게 되지만, 동성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다. 각각 이성애자, 동성애자라고 한다.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끌리는 경우는 양성애자, 어느 쪽도 끌리는 않는 자는 무성애자라고 한다.

하늘을 휘젓는 틈새 침투, 무인기 어쩌나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다닌 뒤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비록 서울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공격 기능이 없는 정찰용 소형 무인기로 위협은 낮을지라도 분명한 군사적 위협이다. 무인기는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북한의 무인기와 한국의 무인기 상황과 글로벌 시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무인기의 종류

정찰위성이 전무한 북한은 대남 정보, 감시 및 정찰 임무 수행이 어려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무인기는 세 종류다. 가장 많은 것이 중국 무인비행기 D-4를 도입해 자체 개조한 '방현-I·II'로 최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했다. 300여 대로 기만이나 훈련 표적용으로 사용한다. 길이 3.23m, 고도 3km, 최대 시속 162km로 비행하며 작전반경 4km다. 유사시 20~25kg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중동에서 수입한 길이 8m 'VR-3'는 작전반경 90km, 체공시간 15분 내외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프라체-1T는 길이 2.78m로 작전반경은 60km에 달하며 2.5km까지 상승할 수 있다. 미국제 무인표적기인 MQM-107D '스트리커'를 시리아로부터 밀수입, 소형 폭탄을 장착한 자폭 무인기로 개조해 운용하고 있다. 시속 925km로 최대 600~800km 떨어진 목표물에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다. 무인기를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자폭 드론 100대가량을 실전 배치했다.

국내 무인기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1979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무인기 개발을 시작해 적 레이더 기만 목적의 무인기 '술개'를 개발했다. 1988년 대우중공업(현 현대중공업)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도요새'를 제작했고, 1991년 정찰용 무인기 '비조'가 탄생했다. 비조는 2000년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RQ-101)'로 발전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KAI는 현재 송골매를 이을 차기 군단급 무인기 'UAV-II'를 개발 중이다. 송골매보다 작전 반경과 체공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게 특징이다. 한화는 '한국형 스타워즈'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개발하고 있다. 20kW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체계로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 따르면 8대 무기체계(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우주, 화력, 방호, 기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이 세계 9위로 분석되었다. 그중 무인항공체계 기술수준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8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는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보유한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상대적 기술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82%의 기술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무인기 시장,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악

미국은 MQ-9 리퍼 무장정찰용 무인기를 비롯해 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스텔스 무인정찰기인 RQ-170 센티넬 등 현재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무인기를 비롯해 무인공중급유기인 MQ-25 스텔레이, 향후 유인전투기와 틈을 이뤄 운용될 XQ-58A 발키리 무인전투기 등 새로운 개념의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는 등 무인항공체계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후발 국가와의 기술격차를 계속 벌려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 이어 2위에 기록된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과거부터 무인항공체계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강국으로 평가돼 온 이스라엘은 이번 조사에서도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5년 조사에서는 94%로 조사돼 사실상 미국에 버금가는 기술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적도 있다. <조사서>에 따르면 특히 이스라엘은 오랜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무인기 개발 노하우와 센서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임무와 운용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오늘날 전 세계 저고도 및 중고도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6위였던 중국이 2018년 이후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무인기 개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항공 전력 시스템에서 비중 넓혀가

드론이라고 통칭되는 무인기는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무인비행장치(UAV),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등이 있다. 이 개념들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무인 비행체란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UAV는 비행체 자체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UAS는 비행체, 임무장비, 지상통제장비, 데이터링크, 지상지원체계를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며 미국에서 많이 쓰인다. RPAS는 201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원격 조종하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군사용 무인기 개발이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인명 손실 최소화, 둘째는 기체 도입 및 운용비용 절감, 셋째는 기체 활용에 있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종사 양성에는 최소 3~4년의 기간과 약 20억~3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군의 중요 자산인 조종사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와 함께 기체 도입 비용이나 운용비용이 유인기보다 저렴하다. 미 공군이 2023년 도입하려는 무인 스텔스 공격기 XQ-58A는 유인 스텔스 전투기 F-35A의 4분의 1의 비용으로 2배 이상의 항속거리에 동일한 탑재 능력을 가진다. 무인기의 경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고고도 유인 정찰기 U-2의 경우, 20km가 넘는 고도에서 8~10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U-2 조종사는 특수 제작된 여압복을 착용해야 한다. 반면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RQ-4 글로벌 호크의 경우, U-2보다 두 배 이상 긴 항속거리를 같은 고도에서 정찰할 수 있다.

경쟁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

기술 수준에서는 미국이 독보적인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이 각각 3~5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도 무인기 기술 경쟁력에서는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국내 무인기 시장은 2018년 3억 2,910만 달러에서 연평균 11.72% 성장해 2025년에는 7억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세계 5위, 2027년에는 세계 3위 무인기 산업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도발 사례

2010년 8월 백령도·연평도 인근 정찰	2014년 3월 경기 파주서 엔진 이상 추락 청와대와 경기 군사시설 활용	2014년 3월 인천 백령도에 연료 부족 추락 서북도서 군사 시설 활용	2014년 9월 백령도 해상에 추락 발견
2022년 12월 경기 서울 상공 침범	2017년 6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활용	2016년 1월 군사분계선 넘어 경기 문산 침범	2015년 8월 경기 화천 군사분계선 침범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우러전쟁, 곧 끝날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접어들고 있다.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전쟁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4일 '특수 군사작전'을 선포하고 수도 키이우를 압박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며칠이나 몇 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점령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하게 교전하고 있다. 종전은커녕 휴전조차 기약이 없다.

러시아는 이미 병합한 4개 공화국을 순순히 양보할 리 없다. 우크라이나도 패전국의 오명 속에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서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전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첨단 무기 지원은 자제하고 있다. 지리한 소모전에서 희생되는 것은 민간인과 일선 병사들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나

는 미국 등 나토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끊기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고, 러시아는 서방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면 이에 상응하는 무력으로 맞대응해야 하므로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기 국민들을 희생하면서 서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달리 말하면 서방은 대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서방국가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평화를 회복하는 것보다 전쟁을 가능하면 오래 끌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얼마 안 되어 튀르키예가 주선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평화협상이 타결될 듯이 보였으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면서 전쟁을 계속하도록 종용하여 결국 평화협

상은 깨지고 말았다.

미국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설사 러시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없는 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 패배한다면 안보 위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가 분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이미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함정에 빠뜨려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내 비료 생산기업인 CF 인터스트리는 전쟁 발발 후 첫 3개월 동안 8억83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둔 수익(약 1억5100만 달러) 규모의 6배에 해당한다. 미국 석유 및 가스회사들은 올해 2~3분기에 거둔 수익이 28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반대로 에너지기업들은 평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에너지기업들이 거둔 과도한 수익에 대해 '연대 기여'를 명목으로 33%의 추가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영국도 북해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65%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25년까지 25%의 '에너지 수익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과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주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체계들에 대한 자국 비축분 보충에도 벅찬 상황이다. 그래서 방산업체들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하락장 속에서도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 방산업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 내외였다가 2021년에 전년의 두 배가 넘는 72억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그런데 2022년 지금까지 다시 그 두 배가 넘는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상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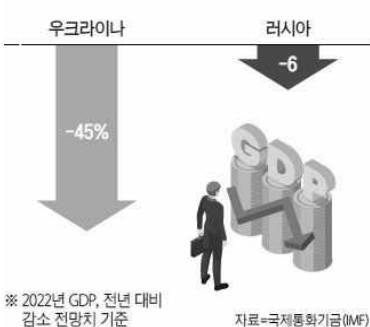
영토포해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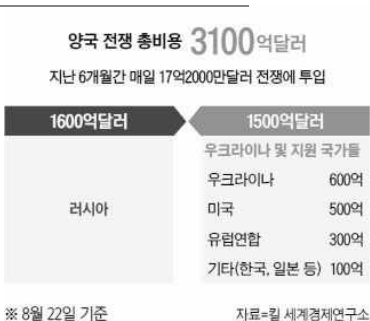
경제피해



피해 규모 및 복구 비용



전쟁 비용



고향 등진 우크라이나 국민



차솟는 유럽 시장 천연가스 가격



미국으로의 155mm 곡사포탄 10만 발 수출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수출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 후 부족한 재고를 메꾸는 것이어서,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우크라이나로의 간접 지원이나 다름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전쟁을 이해하려면 누가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가를 살펴야 한다. 전쟁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일부 특권층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산업체를 건드리지 않고, 전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업체	상승률	해외 업체	상승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2.0%	록히드 마틴	47.7%
한국항공우주산업	75.1%	레이시온	24.9%
LIG넥스원	64.8%	노스롭그루먼	54.1%
현대로템	74.8%	제너럴 다이내믹스	33.2%



봄, 두 발로 느껴보자

무거운 코트가 부담스러운 계절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기운을 느끼며 사뽏사뽏 걷기에 더없이 좋은 3월이다.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걷기에 좋은 길을 살펴보았다.

서울의 보석 용마·아차산 코스

서울 둘레길은 서울의 명산을 따라 서울의 안과 밖을 돌며 157km로 이어지는 순환코스인데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길이 2코스 용마·아차산 코스다. 특히 아차산은 서울 시민들에게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은 ‘도심의 보석’이다. 해발 300m로 높지는 않지만 능선은 제법 길게 이어져 산을 타는 맛이 난다. 능선을 따라 좌우로 화려한 서울 풍경이 펼쳐지지만 산책로는 완전히 다르다. 소나무, 풀 냄새가 흠 내음과 어우러져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다. 화랑대역~중랑캠핑숲~구릉산~망우산~용마산~아차산~광나루역으로 이어지는 12.6km 코스와 코스를 모두 돌기 쉽지 않으니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서 가야 한다.



사계절 다른 풍경 즐기는 수원화성 성곽길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수원팔색길 화성 성곽길은 사계절 다른 풍경을 선사하기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당일치기 가족 나들이 장소로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북문으로 불리는 장안문에서 성곽길은 시작하며 화성행궁까지 5km 정도 되는 길로 성 내외를 구경하며 걷다 보면 2시간 정도 걸린다. 장안문~화홍문~창룡문~팔달문시장~영동시장~못골시장~미나리광시장~팔달문~팔달산~서장대~화서문~화서공원~장안문으로 이어진다. 코스 중간의 팔달문 근처 지동시장에서는 순대 등 따끈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경기 안산 대부해솔길 1코스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지역이며, 바다가 보이는 해변과 아트막한 산길을 따라 북망산에 오르면 영종도, 인천대교, 송도신도시, 시화호의 전경이 펼쳐지는 길이다. 구봉도 끝자락 개미허리를 지나면 낙조전망대가 있어 서해안의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고, 해안을 끼고 종현어촌체험마을로 가는 길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 나누며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대부도관광안내소(방아머리공원)~북망산~구봉약수터~개미허리~낙조전망대~구봉선돌~종현어촌체험마을~둔지섬안길로 이어지는 11.3km 코스로 4시간이 소요된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둘레길 1코스

소나무 숲길로 불리는 이 길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산길로 이뤄져 둘레길을 처음 걷는 사람도 쉽게 걸을 수 있다. 청정(우이)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시작한 길은 맑은 약수로 가득한 만고강산을 지나 1,000여 그루의 소나무가 빼곡히 자라고 있는 솔밭근린공원에서는 강렬한 송진 향이 온몸을 감싸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우이령길 입구~둘레길안내소(우이분소)~만고강산 약수터~솔밭근린공원 입구~솔밭근린공원 상단으로 이어지는 3.1km 코스로 1시간 30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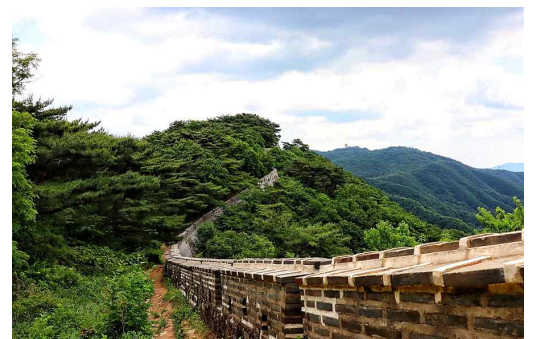
인천 영종도 둘레길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 인근에 위치한 해상관광탐방로는 2016년 해상테크로드 550m로 개통된 이후 주변 등산로를 연계해 2020년 추가로 300m의 해상테크로드를 완성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의 ‘용유·무의 둘레길’은 용유지역의 선녀바위 문화탐방로와 무의지역의 해상관광탐방로 및 트레킹둘레길 코스로 유명하다. 선녀바위 문화탐방로는 을왕리 해수욕장부터 선녀바위 해변까지 총연장 2.1km로 해변과 산림이 있으며 포토존과 전망대, 출렁다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산성 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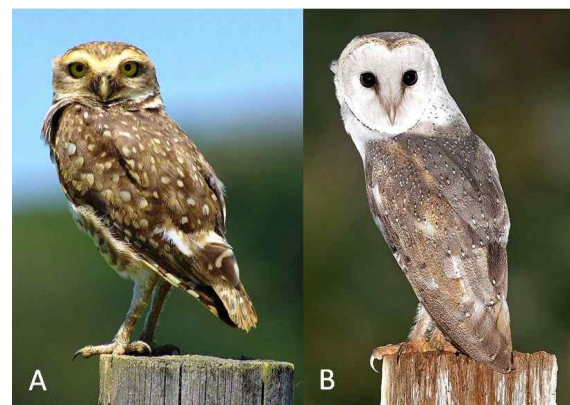
남한산성은 독립공원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산성으로 남한산 등산로와 함께 동서남북 산성문을 잇는 약 12km의 성곽길이 있다. 구불 구불하게 이어지는 성곽길과 웅성길, 등산로는 하루에 다 걷기 힘들 정도로 길다. 산성일대는 주민들이 정성으로 돌보고 지켜온 소나무 숲이 72ha 펼쳐져 있다. 이 소나무 숲은 일제강점기 때 마을 주민들이 국유림을 불하받은 후 별채를 금지하는 금리조합을 만들어 보호하며 숲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노송이 넓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올빼미, 밤하늘의 주인

올빼미(owls)는 큰 눈을 가진 흥미롭고 장엄한 새이며, 머리에 귀 같은 것이 있고, 날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며, 밤에 부엉부엉하고 우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산다. 이 새들은 혼자 다니며, 보통 황혼이나 밤에 활동한다. 가시올빼미 및 쇠부엉이와 같은 일부 종은 낮 동안에 활동한다.

올빼미는 곤충이나 설치류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먹는다. 수리부엉이와 같은 일부 종은 새끼사슴을 죽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두 과(科)의 올빼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빼미과에는 25개의 속과 190개의 종이 있으며(그림 A), 가면올빼미과는 두 개의 속과 20개의 종이 있다(그림 B).



올빼미과는 ‘귀 깃’(실제 귀가 아닌 대칭으로 배열된 깃털)을 가진 것이 있으며, 눈이 비교적 크고, 부리는 비교적 작다. 가면올빼미과는 심장 모양의 얼굴과 긴 다리를 갖고 있다. 그들의 눈은 일반적으로 올빼미과의 눈보다 작고, 부리는 더 길다.

올빼미의 신장은 13cm 크기의 엘프올빼미에서부터 82cm인 북방올빼미(큰회색올빼미)까지 범위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조류와는 달리 암컷 올빼미가 수컷보다 더 크고, 색상이 더 다양하다.

올빼미는 밤에 어떻게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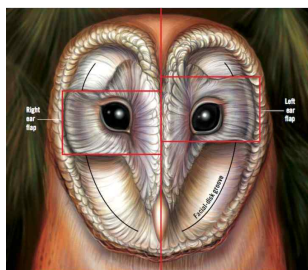
올빼미는 특징적으로 큰 눈을 갖고 있는데, 올빼미 눈의 무게는 체중의 5%에 이른다. 이는 인간의 눈에 비해 100배나 되는 비율이다. 그들의 눈은 우리의 눈보다도 빛과 움직임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며, 모든 생물들이 밤에 사물을 볼 때 사용하는, 빛을 감지하는 간상세포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간상세포가 사람의 눈에는 제곱밀리미터당 약 20만 개가 있는데 비해, 올빼미의 눈에는 최대 1백만 개가 있다. 다른 많은 새와는 달리, 올빼미는 정면을 향하는 눈을 갖고 있으며, 양 눈에 대한 시야가 겹친다. 이것

은 맹금류에 존재하는 양안시를 허용한다. 그러나, 오직 부엉이만이 튜브 모양의 눈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는 ‘공막 고리’라 불리는 뼈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눈알을 ‘굴릴’ 수 없어서, 그들 주변을 보려면 머리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올빼미는 머리를 양쪽으로 270도나 돌릴 수 있으며, 심지어 뒤집기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목에는 14개의 척추(경추)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수의 두 배이다.

극상의 청각자

올빼미는 밤에 사냥할 때, 높은 야간 시력 외에도, 먹잇감의 소리에 의존한다. 그들의 청각계는 고도로 정교하고, 매우 민감하다. 북방올빼미는 75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쥐가 짹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많은 올빼미는 원반 모양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귀는 이 안면 원반 위에 있으며, 깃털로 덮여 있다), 소리를 귀쪽으로 깔때기처럼 모아준다. 이것은 마치 위성 수신 접시안테나와 같은 기능을 하며, 올빼미의 두개 위에 있는 특수 근육을 움직여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눈의 수정체가 모양을 변화시켜, 여러 거리에서 오는 빛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과 같다.

올빼미의 귀는 얼굴 원반을 덮는 깃털 아래에 있다. 많은 종에서 귀는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올빼미가 그들의 먹이를 3차원적으로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사냥할 때, 올빼미는 머리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먹이로부터의 음파가 동시에 양쪽 귀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위나 아래의 음량 수준의 차이에 근거하여 올빼미는 머리를 위 아래로 움직여서 먹이를 찾아낸다. 이 표적조준 메커니즘은 매우 정확해서, 올빼미가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1.5도 이내에서 먹이를 찾도록 해준다.



소음 없는 비행

올빼미는 사냥할 때, 거의 소음 없이 날아감으로, 먹잇감에게 들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 한 특징은 저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큰 날개인데, 이것은 소음이 적다. 올빼미 날개의 전연의 제1깃털에 있는 빗 모양의 구조가 난기류를 상쇄시킨다. 올빼미의 제2깃털의 들쭉날쭉한 가장자리는 난기류를 더욱 감소시킨다. 대부분 올빼미 깃털의 밑(작은 깃가지)은 펜놀라(라틴어로 작은 날개)라고 하는 머리카락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들은 날개가 우단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해주며, 깃털들이 서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도록 한다. 그것은 또한 날개의 다공성

을 증가시켜, 소음을 더욱 줄인다. 이것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의 더 조용한 냉각팬 날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물고기와 곤충(다가오는 올빼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만을 사냥하는 올빼미 종에는 이러한 소리를 줄여주는 특성이 없다. 원래의 올빼미 종류에서 유전정보를 파괴한 돌연변이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쇠퇴되고 있는 기능이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자연선택은 그러한 돌연변이를 제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빼미의 팔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올빼미는 먹이를 씹지 않고 삼킨다. 먹이는 두 부분으로 나뉜 위장에서, 먼저 선위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산과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여, 소화가 더 쉽게 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먹이는 두 번째 부분인 모래주머니로 이동하여, 모피, 깃털, 뼈와 같은 소화될 수 없는 것들은 펠릿으로 압축된다. 펠릿은 다시 선위로 되돌아가서, 나중에 입 밖으로 배출된다. 펠릿은 회색 또는 검은 색이며, 숲 지역이나 헛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펠릿의 내용물은 올빼미의 식단과 특정 지역 먹이 종의 종류에 대해 알려준다.

올빼미들은 한 ‘종류’인가, 그 이상인가?

오늘날 올빼미의 두 주요 분류군은 두 구별된 창조된 종류, 또는 바라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화석 올빼미 오지고프티닉스는 올빼미과와 가면올빼미과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오지고프티닉스(또는 최소한 그에 가까운)는 조상 형태인 단 하나의 올빼미 바라민이었을 수 있다. 대홍수 이전에 살고 있던 이런 형태의 올빼미가 그 종류 내의 전체 유전정보가 반영되어, 나중에 많은 종분화와 다양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멸종된 화석 종인 쿠바 자이언트올빼미로부터 짐작해볼 수 있듯이, 그중 일부 유전정보는 오늘날의 올빼미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키는 1m가 넘었다. 놀랍지 않게도, 화석 기록에서 올빼미가 진화되었다는 개념을 지지할만한 증거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오지고프티닉스는 사실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올빼미 화석으로, 약 6천170만~5천68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현대의 올빼미와 똑같이 생겼다.

요약 및 결론

올빼미는 고도로 복잡한 시각계와 청각계를 갖고 있는 놀라운 동물이다. 올빼미는 무작위적 돌연변이들로 우연히 생겨난(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이 동물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방의 다이제스트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는 국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 의무 복무제, 즉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데,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국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토의 지적을 의식한 듯 덴마크는 지난달 국방비를 한 번에 45억 크로네(8천100억 원)를 증액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덴마크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3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됐다. 덴마크에는 지금도 여군이 있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입대한 경우다. 남성에 대해선 이미 징병제가 운용되고 있는데, 추첨제를 통해 군 복무자로 지정되면 4개월가량 의무복무한다. 덴마크 군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4년까지만 해도 6% 초반대였지만 점차 올라 최근에는 9%에 육박하고 있다. 이웃 나라 노르웨이는 2015년에 나토 회원국 중 처음으로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했다. 2021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군의 여성 비율은 20%까지 올랐다. 스웨덴도 2017년 군 의무복무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징집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핀란드, “난 트랜스젠더” 선언만 하면 성별 바뀌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트랜스젠더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명 ‘진보적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핀란드 의회는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새 법안을 가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는 18세 이상 성전환자가 ‘자기 선언’ 과정만 거치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의학적 진단 없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베트남, 빈곤율 7.5%..197만 가구 생계 곤란

베트남 노동부가 실시한 지난해 소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97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됐으며 빈곤율은 7.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북부 내륙과 산간 지역의 빈곤율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중부 고원지대와 북중부·중부해안 지역이 각각 15.3%, 10%를 기록했다. 메콩강과 홍강 유역은 5.7%, 2.4%에 달했다.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몰려있는 남부 지역은 0.3%로 가장 낮았다. 베트남 당국은 시골의 경우 1인당 월 소득 150만 동(7만 8천 원)을 기점으로 빈곤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 지역은 200만 동(10만 4천 원)이다. 이런 기준치는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빈곤층 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고려해 올해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며 베트남 전체 인구는 9천600만 명에 달한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4위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민주주의 지수 2022’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에 8.03을 기록해 ‘완전한 민주국가’ 등급을 받았다.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순위가 24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16위보다 8계단, 2020년 23위보다 1계단 하락한 등수이다. 특히, ‘정치 문화’ 영역에서 점수가 대폭 하락했는데 이에 대해 EIU는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

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했다. 세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9.81점)이며,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16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는 0.32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166위는 미얀마(0.74점)이다. 북한은 1.08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인 165위를 기록했다.

2023년 ‘생성 AI’ 등장 후 사라질 직업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챗GPT’의 등장으로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 우려가 커진다. 생성 AI가 대중화되면서 콜센터 상담 직원·사무원·프로그래머·기자·회계사·통역사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뿐 아니라 의사·약사·변호사·리서치 통계 연구원 등 전문직까지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AI가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논리적으로 복잡한 내용까지 분석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생성 AI로 인간이 단순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라 기대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문제가 제기된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훈련하는 만큼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견과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를 영구화할 수 있다. 아울러 챗GPT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도구인 만큼 특정 집단에 대한 동향감시 또는 악의적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겨울 간식 지도 원픽은?

당근마켓이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겨울간식지도’에 많이 올라온 장소 순위를 집계한 결과 봉어빵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당근마켓 겨울간식지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동네 먹거리 장소를 등록하고 이웃과 공유하는 오픈맵 서비스다. 올 겨울 많이 등록된 장소는 봉어빵(65.1%) 어묵(10.5%) 호떡(9.9%) 군고구마(4.0%) 타코야키(3.4%) 계란빵(2.8%) 국화빵(2.2%) 군밤(1.3%) 호빵

(0.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봉어빵 장소가 가장 많이 등록된 동네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이며, 어묵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호떡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군고구마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를 불문하고 간식 장소 정보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이며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곳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었다.

쌀 소비량 역대 최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1년 전보다 0.4%(0.2kg)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30년 전인 1992년(112.9kg) 소비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5g으로 1년 전보다 0.2%(0.3g) 줄었다. 밥 한공기에 쌀이 90g이라

고 할 때 하루에 두 공기를 채 먹지 않는 셈이다. 하루 쌀 소비량은 2013년 184.0g에서 2020년 160g 아래로 떨어지는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사업체부문(식료품·음료)에서 제품 원료로 쓰이는 쌀은 총 69만1422t으로 전년보다 1.7%(1만1265t) 증가했다. 즉 석밥·냉동식품 등 식사용 조리식품 수요는 1년 전보다 27.2% 증가하는 등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변이바이러스! 그 끝은 어디일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 완화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엔데믹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때문이다. 변이바이러스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변이 변천사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가 만으로 꼬박 3년을 넘겼다. 끝날 듯하면서도 좀체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힘은 끊임없는 ‘변이’에 있다. 확산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한 백신과 치료제가 종지부를 찍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우한에서 유래한 최초의 코로나19는 알파(α), 베타(β), 감마(γ), 델타(δ), 오미크론(\omicron) 등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특히 오미크론으로 넘어오면서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더 활발해지면서, 변이바이러스의 춘추전국시대가 연출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다. 특히 면역 회피 능력을 갖춘 하위 변이들의 등장은 감염 추세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초기부터 오미크론 이전 변이보다 면역 체계 방어를 더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이는 백신이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1년 내내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 회피 변이들이 등장했고, 이는 과학자들이 다가오는 감염 파급을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변

이인 BN.1이다.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계열인 BA.5.2보다 검출률 증가속도가 44.7%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BN.1은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라 불렸던 BA.2.75에서 파생된 세부변이라는 점이다.

BA.2.75는 신화 속 반인반수의 이름을 딴 별칭이 알려주듯 국내 감염자 발견 당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변이바이러스다. 체내에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가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10개 가까이 많고, 감염력과 면역회피 능력은 BA.5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며 BA.2.75가 기존 우세종인 BA.5를 밀어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BA.5가 점유율 1위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 변이분석상 BA.2.75(켄타우로스 변이)는 지금도 국내에서 활동 중이지만, 검출률은 11%대에 불과하다. BN.1 외 또다른 요주의 변이로 꼽혔던 XBB.1.5도 누적 검출 총 50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난립하는 가운데 어떤 변이가 주도권을 잡을지는 점점 더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 우세종 변이는 5개뿐

한국에서 우세종에 오른 변이는 딱 5개뿐이다. 인도

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원조 오미크론’이라 할 수 있는 BA.1→BA.2(스텔스 오미크론)→BA.5→BN.1 순이다.

델타의 무서움은 치명률이 0.7%에 이르는 독성에 있다. 인플루엔자(계절독감)의 7배 수준이다. 델타 감염자들은 발열·기침 등 통상 알려진 코로나19 증상 외 복통, 구토, 식욕·청력 상실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BA.1)은 델타의 5배에 이르는 전염력으로 단숨에 우세종이 됐다. 자연감염으로 항체를 얻은 국민은 대부분 이때 감염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BA.1은 우세종의 바통을 넘겨받은 BA.2와 맞물려 오미크론 대유행을 이끌었다. BA.1과 BA.2의 ‘쌍끌이’ 후에는 BA.5 유행이 이어졌다. 영국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BA.5는 BA.2에 비해 전파력이 35% 이상 더 빠르다.

오미크론 변이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이 이전 백신들보다 더 큰 방역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일부 국가에서 출시됐으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추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으로 개발된 개량백신(2가 백신)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정신건강 관리는가요? ‘우울증’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듯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기분, 사고, 수면, 식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다. 증상이 다양하며,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연령별 우울증의 특징

소아청소년기

짜증, 반항,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등교 거부, 성적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술이나 의존성 약물의 남용, 청소년 비행으로 행동문제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고3병 중 우울증인 경우도 꽤 있다.

성인기

건강염려증상, 자책이나 공허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고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빈 동지 증후군도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우울 증상들을 모아서 일컫는 말이다. 심한 스트레스로 화병이 생겼다면 외래를 방문하는 사람 중 우울증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화병과 우울증은 속한 범주가 서로 다른, 상이한 질환이어서 치료적 접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하다.

노년기

노인 우울증은 다른 질환과 동반해서 온다. 근육통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질병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

스호르몬이 근육을 긴장시켜 통증을 유발한다. 의욕이 없어 매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급방 본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모호한 신체증상이 많기도 하며 불안도 흔하게 나타난다.

우울증 자가평가 기준(2주 동안 아래 증상이 5개 있으면 우울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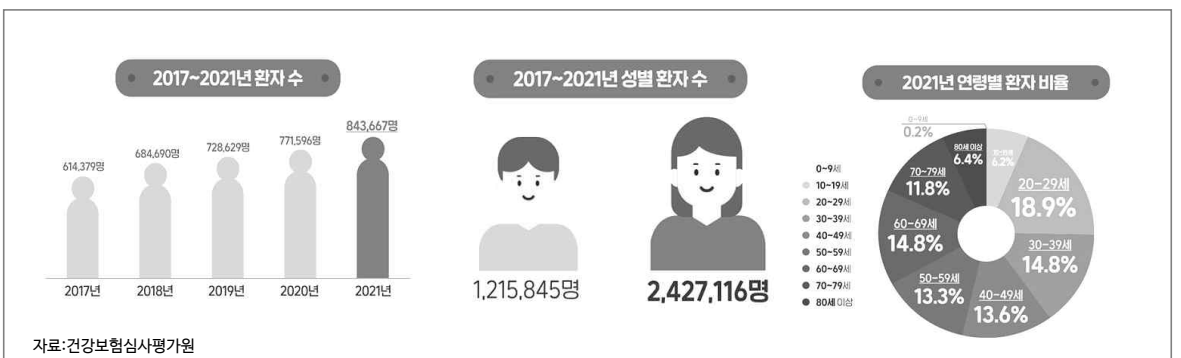
- ☐ 우울감·피로감 또는 활력 상실
- ☐ 흥미, 즐거움 감소·무가치감, 죄책감
- ☐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증가·주의 집중력 장애
- ☐ 불면 또는 과수면·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 ☐ 정신성 운동 지체 또는 심한 불안

우울증 치료

우울증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 치료적 접근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울증은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 꾸준히 약물치료를 계속하도록 한다. 치료결과는 1개월 이상 치료 후 약효여부를 평가한다.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항우울제 처방 기준이 완화되어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의들도 항우울제를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반면 치료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돼왔는데, 다양한 진료과에서 항우울제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구원과 멸망을 정해두신 하나님, 과연 공평한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치고 무조건적인 이중예정론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까?” 한 교계 뉴스 사이트에서 본 댓글이다. 이런 논리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로 가면 훨씬 더 과격해진다.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무조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 뒀으면서 자길 안 믿었다고 심판하는 건 또 뭐냐? 믿을 기회조차 안 준 그 심판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느냐?’는 식이다. 그래서 이중예정론은 기독교 진리의 합리성을 기초로 삼는 변증 전도에서도 가장 큰 신학적 장애물 가운데 하나다.

칼빈주의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버려질 자를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작정해 두셨다는 교리다. 이 배타적인 선택론이 여러 반론에 직면할 것을 가장 잘 의식했던 사람은 이 교리의 창안자인 칼빈 자신이다. 그는 <기독교 강요> 제3권 23장에서 그 반론의 다섯 가지 논리를 이렇게 소개한다. 첫째, 선택 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논리, 둘째, 선택이 사람의 책임을 제거한다는 논리, 셋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대하신다는 논리, 넷째, 선택의 교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린다는 논리, 다섯째, 선택의 교리가 모든 권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논리.

무조건적 이중예정론에 대한 반론들

교회사에서 제기된 이중예정론에 대한 반론들을 칼빈이 염려한 다섯 가지 논리 안에 다 들어있다. 가장 단호한 반론을 제시한 존 웨슬리는 이중예정론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강조한 나머지, 그의 사랑과 공의를 무시하면서 균형 잃은 이상한 하나님상을 제시한다고 공격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며, 하나님은 누가 자신을 사랑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그 개인을 구원으로 선택하신다는 조건적인 예지예정론을 주장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만을 예정하셨고, 그 외에는 모두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예정하셨다고 주장했다. 성경에서 구원의 예정에 대해 말하는 대다수의 구절들이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지칭한다고 본 결과다. 그는 십자가에서 사람은 다 구원으로, 예수님은 저주로 예정되었다고 보았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는 하나님 당신에게 돌리기로 예정하신 것을 복음 그 자체로 놓고, 십자가를 걸다리 취급하는 무조건적 이중예정은 처음부터 성경에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예정론을 테마로 가장 논란이 될만한 성경 구절들을 각기 다른 다섯 가지 신학적 입장에서 조명했다.

아름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하나님은 공평한가?

하나님의 선택의 무조건적 본질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주장은 로마서 9장 10-16절이다. 곧 에서가 아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둘 중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구원과 상관없이 구속사의 계보에서 쓰임 받는 각 개인이나 민족의 특정 역할을 중시한 사역적 예정이었다고 본다. 개인의 구원이 아닌 이러한 사역적 예정은 무조건적 선택이었다고 인정한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고레스를 예정하셨는 말씀(사 44:28)이나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포함된 제자들 모두를 가리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들 모두를 무조건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 역시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역과 관련된 특정 역할로 그를 세우신 과정의 연장 선상에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다.

‘미리 아심’에 따른 예정, 무슨 뜻인가?

칼빈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무조건적으로 택한 자들과 관계 맺고 은혜를 주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혜 성향에 가깝다.

로마서 8장 29-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지된, 그래서 예정된 그들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 특별히 그들이 미래에 가질 믿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런 정보들을 근거로 삼으셨다는 어떤 암시도 본문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예지가 곧 무조건적으로 미리 사랑하신 것, 미리 선택하신 것이라는 의미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예지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의 예지가 미리 사랑하거나 선택하신다는 경험적 관계는 배제된 지식으로, 단순히 미리 아는 인식적인 앞 이상의 무엇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아는 행위도 사람의 정체성을 창조하거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사용된 명사 미리 아심(프로그노시스)은 ‘미리 알다’에 대한 비칼빈주의적

이해와 일치한다. 이 본문은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 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예지와 선택이 서로 구별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 예지가 미리 아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어떤 이유도 없다.

조건적 예지예정론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유

전적 타락을 전적 무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특정 개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을 만큼의 공평한 선행 은총을 주신다고 보는 알미니안 웨슬리주의는, 하나님이 그 초대에 반응할 개인들을 미리 알고 구원으로 예정하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알미니안 웨슬리주의의 입장은 적어도 ‘무조건적 이중예정론의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비신자들의 공격에 정당하게 맞설 수 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종교 개혁기에 부활시켰다. 어거스틴은,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고 신적 작정에 의해 받는다고 주장했다. 교회에도 구원의 권위를 둬으로써 가톨릭 전통 형성에 신학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후 가톨릭교회를 통한 구원에 세례나 기부, 선행이 중시되면서 은혜와 믿음의 교리가 약해지고 행위 구원의 조짐이 강해지며 타락해 가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때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확고하게 강조하려고 어거스틴의 신적 작정론을 그대로 가져와 그의 구원론과 예정론에 도입했다. 행위 구원이 횡행하던 당시로서는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일이 중요했지만,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절대 이중예정론으로까지 치우치게 되었다. 원래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알미니우스는 당시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하는 드릭 쿠크헤르트의 입장을 반박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칼빈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지금 알미니안주의로 알려진 교리를 발표했다.

넓게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온전한 칼빈주의와 온전한 알미니안 웨슬리주의가 만나는 접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예정론이 도출될 법도 하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율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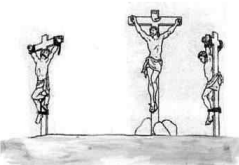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2			5		6		
		2		3			6		7
7	8								
				3	4				
	8		9						16
					4	5		15	
10		18							
					13			14	17
9	11			12			14		
	11						13		

가로문제

- 겨울 장군이라는 뜻으로,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문서나 장부
- 자기 스스로 나서서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적극적으 도움을 주는 일
- 깡도의 막다른 곳
- 돈을 모을 줄만 알아 한번 손에 들어간 것은 도무지 쓰지 않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안목
-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직접 하거나 부딪치기를 꺼리고 회함
-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
-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내용의 이야기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떠한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거나 태도의 변화가 없음을 이르는 말
- 모든 일이 운수에 달려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흔히 글씨 쓰기를 연습할 때 쓰는 얇은 종이
- 공사장, 광산 등의 건설 현장에 임시로 지어 놓은 식당
- 종적을 아주 완벽히 감춤

세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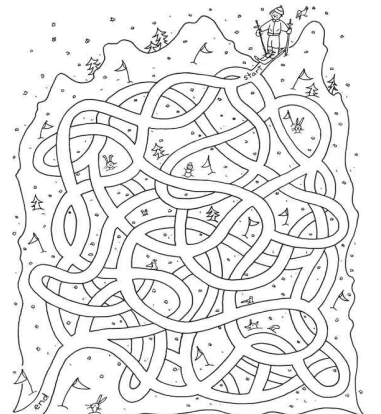
-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정보 따위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 따위로 불필요하게 덧붙은 살
- 일정한 거처나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빈둥빈둥 놀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
- 수박이나 참외 따위를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밭머리에 높게 지어 놓은 막
- 넘나들 수 없도록 사물과 사물 사이를 가리어 막은 벽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불완전한 시력을 조정하거나 바람, 먼지, 센 빛 따위를 막아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쓰는 물건
- 사진이나 영화 따위를 찍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물체
- 쌍방의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 차를 났을 때 일어나는 어지럼증이나 역겨움
- 순수한 털이나 털에 솜을 섞은 것을 곱게 짜거나 두껍게 눌러서 깔거나 뒹게 만든 요
-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 원수를 갚음
- 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굳어진 전통적 행동 양식이나 습관

- 주로 물속으로 잠복하여 다니면서 적을 공격하는 함정
-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 주로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둥그런 모양의 그릇
-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지난 1/2월호 정답입니다>

월	드	컵		친	목	계	
계				영	정		국
관	자	늘	이	수			중
	신		자	격	증		소
	감	명		납		누	나
		승		고	혈	압	기
생	활	고		세		사	소
면		적	금		골	절	봉
부			지	망	생	단	두
지	름	길			수	입	통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임직식(권사/안수집사) ■ 2022년 12월 18일



신년축복성회 ■ 2023년 1월 2일~5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박인용담임목사



권주혁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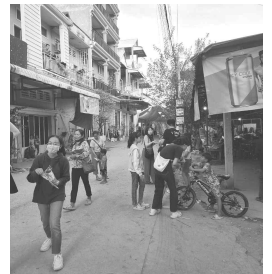


찬양팀



목장별 축복기도

제6차 캄보디아 아웃리치 ■ 1월 13일~19일



◀ 인도아웃리치팀
17주년 기념 ▶



▶ 2023년 1월 30일~2월6일: 인도아웃리치팀 파송식

차세대
주일공과시간





중고등부 박서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처음 아웃리치에 대한 공지가 나왔을 때엔 비용도 큰 부담이 됐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겐 큰 힘들어질 것 같아 신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승진전도사님께서 강요는 하지 않을 테니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가지 않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다 22년 11월 27일 주일, 기도 도중 하나님께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겐 그 마음이 참 소중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며 워십팀도 2년 가까이 섬겼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신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후에는 웬지 마음 한 구석이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응답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비용에 대한 큰 부

담이 물려왔습니다. 저희 집 가정환경이 크게 넉넉한 편은 아니며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교와 관련한 금액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보아도 불안감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정말 감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분께서 저를 추천하셔서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드와이드교회 내에서도 장학금을 주셔서 아웃리치 비용의 1/3을 큰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웃리치 도중 또는 아웃리치 전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냥 신기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제가 그 일을 직접 경험한 후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첫 날부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 있던 새벽예배와 학업, 오랜 비행을 이유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가다보니 물갈이도 하였습니다. 이런 고난 때문인지 처음에는 캄보디아에 온 것을 조금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도착 예배

도 드리지 못하고 숙소에 누워서 쉬고만 있는 게 슬프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상황이니 너무 슬퍼하기보단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정말 다행히도 쾌유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날, 심방을 하러 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를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저들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원하는 게 기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예배와 기도 일정을 소화하며 제 신앙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

통인데 저는 늘 일방적인 요구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웃리치를 통하여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임을 깨닫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고백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아웃리치 모토에 맞게 감사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아웃리치 전의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감사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불평해왔지만, 아웃리치를 통하여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웃리치라는 기회를 얻었던 것도, 그 아웃리치 내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웃리치를 통한 깨달음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분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분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분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분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분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분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주일 랜드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고등부	오전 9:00	4층 비전랜드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 지역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2023 상반기 문화아카데미

2023 행복발전소
월드와이드아카데미

대상 : 지역교회성도 및 지역민 누구나

강좌일정 : 2023년 4월 5일(수) ~ 5월 25일(목) (최대 8주)

접수기간 : 2023년 2월 12일 ~ 4월 4일

접수 : 월드와이드교회 032-501-9686~7 (체육관로 82)

강 의 명	강 사	강사 소개	일 정	요일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료	정원
재봉틀 홈패션	손양희	서울동부기술교육원 의상학과 수료 양장기능사취득 네일아트 국가기술 자격증취득	4월 6일 ~ 5월 25일 (8주 강좌)	수 오전 10시 ~ 12 시	3층 유년부	1만원	5명
건강한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희순	홍대미대 졸업. 명지대학 미술치료전공	4월 6일 ~ 5월 25일 (8주 강좌)	목 오전 10시 ~ 12 시	2층 영아부	1만원	10명
캘리 그래피	김재원	대전교차로 피오피. 캘리그래피 강사 대전교육청 하계연수 (8주과정) 피오피강의 기)삼성화재 하계연수 피오피특강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피오피특강 대전보건대학교직업교육원 피오피 특강	4월 6일 ~ 5월 25일 (8주 강좌)	금 오후 1시30분 ~ 2시30분	2층 영아부	1만원	6명
카페 바리스타 입문	최경순	월드와이드스테이션 카페바리스타	4월 6일 ~ 4월 27일 (4주 강좌)	토 오후 10시30분 ~ 12시	1층 카페	1만원	10명

* 장소 및 강사료는 교회에서 후원하며 지역봉사를
위해 최소한의 수업집중을 위한 등록비를 받습니다.
모두 행복발전소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